**2014년 7월 24일 시행 국가직 7급 영어 해설 (조은정)**

총평

올해 국가직 7급 영어는 작년 대비 비슷한 난이도 또는 다소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된 듯하다. 물론, 올해 시행된 서울시 7급보다도 훨씬 쉽게 출제되었다. 세부 영역별로 보면 아래와 같은 문항수 비율을 보인다. 어휘 및 생활영어, 문법 및 영작, 독해 각 영역별 문항수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세부영역 내에서 다소 변화가 있다.

어휘 3문항이 모두 단어 문제로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숙어 문제가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생소한 숙어에 대한 대비가 약한 수험생들이 다소 편하게 시험지 전반부를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어 문제 또한, 출제된 단어 및 선지 단어들이 작년에 비해 매우 평이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정답률을 높일 듯하다. 생활영어 2문항은 어색한 대화 찾기 유형이 배제되고 2문항 모두 빈칸형으로 출제되었는데, 대화 지문이나 선지 등에서 생소한 숙어 표현 등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수월하게 답이 보이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문법 및 영작은 동일한 패턴을 유지했으며,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나 함정 선택지 등이 거의 보이지 않고 지엽적인 요소도 출제되지 않았다. 빠르고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역시 체감난이도를 낮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독해는 빈칸 추론 유형이 증가하고 세부정보 유형(일치 등)이 줄었다. 그러나 A형 19, 20번 등은 다소 선택지 오답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 올해 국가직 7급은 어휘나 문법 보다는 독해에서 다소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빈칸추론 18, 19번과 같이 문맥에 적절한 어휘의 사용을 묻는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이니 대비가 필요하다. 어휘 10, 11, 12번에서 보듯이, 고급어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대신, 일상적인 어휘의 문맥적 사용에 초점을 두는 문제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니 향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 영역별 | 2014 문항수 | 2013 문항수 |
|---|---|---|
| 어휘 | 3 (단어3, 숙어0) | 3 (단어2, 숙어1) |
| 생활영어 | 2 (대화 빈칸형2) | 2 (대화 빈칸형1, 어색한 대화형1) |
| 문법 및 영작 | 7 (문법4, 영작3) | 7 (문법4, 영작3) |
| 독해 | 8 (빈칸4, 일치2, 대의1, 위치1) | 8 (빈칸2, 일치4, 대의1, 연결사1) |
| 총합 | 20 | 20 |

1.
[정답] ④
[해석]
A : Black Cleaners입니다. 도와드릴까요?
B : 네, 제 수트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A :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B : Bill Jackson입니다.
A : 이름이 기억나는군요. 준비되었을 겁니다.
B :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괜히 헛걸음하기 싫어서요.
A : 어두운 갈색 수트 맞죠?
B : 맞습니다.
A : 네, 준비되었어요.
B : 고맙습니다.

[해설]
B가 '헛걸음하기 싫다(I don't want to make a trip for nothing.)'고 말하고 있고 A가 수트의 색상을 언급하며 맞는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B는 수트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부탁의 말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① 여기로 오시겠어요?
② 이 색상이 좋으신가요?
③ 이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④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2.
[정답] ④
[해석]
A : 실례합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새로 온 사람입니다. 여기 규율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B : 네, 물론이죠.
A : 우선, 주자에 대해서요. 건물 뒤에 차를 두어도 되나요?
B : 물론입니다.
A : 그럼 손님이 오실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 손님은 건물 뒤에 차를 두실 수 없습니다. 손님은 앞쪽에 있는 손님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셔야 해요.
A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B : 고양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개는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고 밤에 짓거든요.
A : 알겠습니다.
B : 다른 질문 있나요?
A : 이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A가 B에게 아파트의 주차와 애완동물에 관한 규정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화 도입부에 해당하는 밑줄 친 부분은 '여기 규정 몇가지에 대해 물어봐도 되나요?"라는 뜻의 4번이 적절하다.

① 여기에 주차해도 괜찮나요?
②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③ 주변 좀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④ 여기 몇 가지 규정에 관해 좀 물어볼 수 있나요?

3.
[정답] ③
[해석]
① 지금부터 2시간 후에, 홀은 텅 빌 것이다. 콘서트는 끝날 것이다.
② 실험실 검사는 그렇지 않았으면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갔을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③ 경찰은 낡은 동전을 발견했고, 그 동전의 날짜는 닳아서 읽을 수 없었다.
④ Tom은 너무나 확고한 결정을 내려서 그를 설득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

[해설]
an old coin 뒤에 있는 관계사는 an old coin을 수식하면서 자기 절 내에서는 명사인 date를 수식해야 하므로 which는 소유격관계사인 whose로 고쳐 써야 한다.

4.
[정답] ③
[해석]
네덜란드는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은 있지만 세계에서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죽기 위해 의료적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의사와 환자는 차도의 희망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의사의 의견도 들어야만 한다.

[해설] undergo는 '~을 겪다'는 타동사이다. Those와 undergo간은 의미상 서로 능동의 관계이고, 뒤에 목적어(unbearable suffering)도 있으므로 수동태로 쓴 ③번은 틀린 표현이다. 능동태로 고쳐 써야 한다.

5.
[정답] ②
[해석]
차가 정비공 차고에서 고쳐지고 있는 동안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을 때, 나는 내가 기계와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해설] my car와 repair(~을 고치다, 수리하다)는 서로 수동의 관계이므로 수동태 동사가 필요하다. ②번은 was repaired나 was being repaired가 되어야 한다.

6.
[정답] ④
Civil Service 경력은 당신이 하루하루 성취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 사업을 위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에서, 인권과 인간 문제를 감독하고, 경영 감독을 제공하는 일까지, 당신은 Civil Service 경력에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외국 정책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미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사업 관행이나 과정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해설]
involve는 '~을 포함하다, ~을 관련시키다'는 뜻의 타동사이고 이는 수식받는 명사인 the businnes practices and processes와 수동의 관계이므로, ④번은 과거분사인 involved로 고쳐야 한다.

7.
[정답] ③
[해설]
글 초반에 비타민 D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however부터 비타민 D와 질병 예방에 관한 뚜렷한 연관관계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적합한 것은 ③번 '비타민 D는 이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만큼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가 된다.

① 비타민 D를 복용하는 사람은 질병을 막을 수 있다.
② 건강한 사람도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③ 비타민 D는 이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만큼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④ 비타민 D 부족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은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8.
[정답] ③
[해설]
① 글 초반에서 Boris Spassky의 라이벌은 Bobby Fisher였지, 저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Bobby Fisher와 Boris Spassky가 라이벌 관계일 때 저자는 9살에 불과했다.
② 'I became world champion in 1985~' 문장에서 저자는 1985년 월드 챔피언이 되었지만, Ficher의 기록을 깨는 데는 4년이 더 걸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2번은 틀린 진술이다.
③ 마지막 문장 'even his adversaries had to admire his game.'에서 Fischer의 반대자들도 그의 게임을 존경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4번은 틀린 진술이다.

9. ②
[해설]
제시문에 however가 있고, '그들이 너무나 관대하면, 기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제시문 앞에는 they가 가리킬 수 있는 말과 더불어, 내용상 반대되는 상황, 즉 관대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언급되어야 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곳은 B가 된다.

10.
[정답] ①
[해설]
글 전체의 주제인 “오래 사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 놓여야 하므로 “장수”라는 뜻의 longevity가 정답이다.

11. ③
[해설]
analogous : 유사한
① delicate : 섬세한, 연약한
② weird : 이상한
③ similar : 비슷한
④ novel : 새로운, 신기한

12.
[정답] ①
[해설]
첫 번째 문장은 ‘보도하다’는 뜻의 말이 놓여야 하고, 두 번째 문장은 ‘(상해, 분실, 비용 등을) 보장하다’는 말이 놓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진 동사는 cover이다.

② cast : 던지다, 배역을 정하다
③ charge : 싣다, (책임을) 지우다, 고발하다, 장전하다
④ claim : 요구하다, 주장하다

13.
[정답] ①
① : for fear (that)~ 과 lest ~는 그 자체에 부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뒤에 오는 절에는 부정어를 추가로 쓰지 않는다. 따라서 should not에서 not을 빼야 한다.
② : 서수나 the last, the only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to부정사로 수식하므로 ②번은 틀리지 않다. 'the last A to V'는 '결코 V하지 않을 A'의 뜻이다.
③ : be entitled to~에서 to는 전치사, 부정사 양쪽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전치사로 쓰인 것이다.
④ : A is one thing, ans B is another는 'A와 B는 별개다'는 뜻의 구문이다.

14.
[정답] ④
[해설]
① : 최상급이 동일한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 the를 쓰지 않는다.
② : be accustomed to~에서 to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가 놓인 표현은 틀리지 않다.
③ : '부분표현 of 명사'의 수는 of 뒤에 놓인 명사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 문장은 of 뒤에 my classmates라는 복수 명사가 있으므로 동사가 are가 되었다.
④ : which는 자기 절에서 대명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 문장은 which 뒤가 완전하다. 따라서 적절한 전치사를 써야 하는데, sacrifice는 sacrifice A to[for] B(A를 B에 희생시키다) 형태로 쓰므로 which 앞에 to[for]를 붙여주거나 문미에 to[for]를 써 주어야 한다.

15.
[정답] ②
① there is no ~ing는 '~할 수 없다'는 뜻의 동명사 관용어구이다.
② survive는 "살아남다"는 뜻으로 the lower animals와 능동의 관계이다. 따라서 수동태로 쓰인 be survived는 survive로 고쳐야 한다.
③ Having~부분은 분사구문이며, have no choice but to V는 'V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④ effect는 "취지"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이때 뒤에 동격의 that절이 붙으면 '~라는 취지'의 뜻이 된다.

16.
[정답] ②
글은 한국의 해외 입양이 많은 이유로 순수 혈통(pure bloodline)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Confucian values), 미혼모를 경시하는 풍조(stigmatizing unwed mothers), 경제적 어려움(economic difficulties)을 언급하고 있을 뿐, 국제 입양 법에 관한 신뢰를 언급한 문장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① 한국 문화는 미혼모를 그리 존중하지 않는다.
② 한국은 국제 입양 법에 대해 신뢰해 왔다.
③ 한국 문화는 유교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④ 종종 미혼모는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17.
[정답] ②
Antonio Pigafetta의 항해 기록은 정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궁둥이에 배꼽이 있는 돼지', '암컷이 짝 등에 알을 낳는 새' 등을 보았다고 묘사한 것으로 보아 공상(fantasy)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현실
② 공상
③ 역사
④ 과학

18.
[정답] ④
(ㄱ) : 새로운 상품과 프로세스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므로 (ㄱ)은 '상당히 많은'의 뜻을 가진 substantial가 적절하다.
(ㄴ) : 밑줄 앞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R&D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잡지 못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ㄴ)은 '투자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hesitate)'로 호응해야 적절하다.

19.
[정답] ②
[해설]
(ㄱ) : 글 앞부분은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시간의 양을 지목하고 있는 “10,000-hour rule”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ㄱ)은 양과 반대되는 개념인 질(quality)이 놓여야 적절하다.

(ㄴ) : 밑줄 뒤에서 전문가, 코치, 멘토를 동반한 계속적인 집중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ㄴ)은 '계획적인[신중한](deliberate) 집중력 연습'이라는 말이 되어야 적절하다.

20.
[정답] ①
상대가 무기를 개별하면 그에 맞대응하는 무기를 개발하여 서로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이룬 상태가 긍정적인 평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글이다. ‘a stable balance of terror(공포의 안정된 균형’, ‘conviction that the other man can and will do what he threatens if he is attacked(상대가 공격을 받으면 위협했던 것을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 ‘attempting to produce stability in this way(이런 식으로 안정을 이루는 것)’ 모두가 상대의 무기에 대한 공포로 얻어진 평화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빈칸은 이런 주제와 호응하는 ①번 ‘공포를 통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정답이다.

① 공포로 인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② 제재를 통한 평화
③ 박애주의를 통한 화해
④ 기습을 통한 자기 방어